논 술 (인문계)

(가)

감정보다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성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견해가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이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이 감정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어떤 대상이 고통이나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간의 감정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누리려 한다. 그런데 감정은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그 대상과 인과관계를 맺는 모든 대상과 관련된다. 이성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인간의 행동은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성은 행동의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성을 '감정의 노예'로 일컫기도 하였다. 이성은 감정에 복무하는 이외의 다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내 손가락의 작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이기주의도 이성에 반하지 않으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작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타주의도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의 충실한 도구일 따름이다.

감정의 충실한 도구로서 이성이 하는 역할은 감정의 대상을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그것과 다른 대상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이성이 대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감정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감정이 원래 바라던 바와 어긋날 수 있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성은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를 분석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성은 그 실행 방안이 감정에 유익한지 확인한 후 감정에 적합한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성은 감정에 충실히 봉사한다.

(나)

두 친구 갑과 을이 A와 B 중 한 분야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 각자가 얻을 이윤은 달라진다. 갑이 얻을 수 있는 이윤과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다음과 같다.

<뒷장에 계속>

<갑의 이윤>

		을	
		A	B
갑	A	12	9
	B	15	10

<을의 이윤>

		을	
		A	B
갑	A	12	15
	B	9	10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사업 분야를 정한다. 갑은 을이 A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자신이 A를 택할 경우 12의 이윤을, B를 택할 경우 15의 이윤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경우 중 더 큰 이윤을 가져다 줄 B를 택한다. 만일 을이 B를 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갑은 9와 10의 이윤 중 더 큰 이윤을 얻게 해주는 B를 택한다. 따라서 을이 어떤 사업 분야를 택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갑은 항상 B를 택할 것이다. 을도 갑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 분야를 정하고, 그 결과 B로 진출할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B에 진출하여 각각 10의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때 갑과 을의 '의사결정요소'는 자신의 이윤이다.

(다)

공자가 말했다.

"도(道)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도를 행한다면서 사람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 군자는 '사람다움'의 기준으로 사람을 다스리되 사람이 그 기준에 맞게 바로잡히면 다스림을 그친다. 도는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군자의 도에는 네 가지가 있다. 나는 그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자식에게 바라는 바로써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하급자에게 바라는 바로써 상급자를 대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바라는 바로써 형을 위하지 못하고, 벗에게 바라는 바로써 벗에게 먼저 베풀지 못한다. 그러니 평소에 어찌 말과 행동에 부족함이나 지나침이 없도록 성실히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자가 일컫는 도의 의미에 대해 그의 제자인 증자는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충'이란 자신의 진심을 다한다는 뜻이고, '서'란 자신을 미루어 남을 대한다는 뜻이다. 자연에는 만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칙과 규범이 있다. 모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이 법칙과 규범을 부여받아 동일한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충'은 바로 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진실된 마음이다. '서'는 어떤 경우이든 한결같이 '충'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대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뒷장에 계속>

(라)

의사결정의 '최적모형'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첫째,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목표가 여럿이라면 그것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알려져야 한다. 둘째, 목표의 구현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과 각각의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파악되어야 한다. 셋째,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대안들 간의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에는 지식과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면 대안 탐색의 과정에서는 주의력의 한계로 모든 대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으며 그 중 몇 개의 대안을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지식과 시간의 제약은 대안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제한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그로써 최적의 대안 대신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기대수준을 넘어서는 만족할 만한 대안이 선택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만족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적모형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데 관심을 집중하며 의사결정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를 중시한다. 만족모형에서는 인지능력과 지식과 시간 등의 면에서 한계를 지닌 행위자가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비교적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지에 관심을 집중하며, 의사결정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시한다.

만족모형에서는 일정한 탐색 작업을 통해 발견한 대안이 행위자의 기대수준을 초과한다면 탐색이 정지되고 그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만일 그러한 대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행위자는 자신의 기대수준을 낮춘 후 탐색작업을 계속하여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다. 그에 반해 만일 만족스러운 대안이 너무 쉽사리 발견된다면 행위자는 자신의 기대수준을 조금 더 높인 후 탐색 작업을 수행하여 그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만족모형에 따른 의사결정은 적응적 과정을 밟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

정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고 7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보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1,000건이 신고되었다. 그런데 접수된 건들 중에는 보상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조사를 마친 직후에, 적발된 허위신고를 제외한 모든 접수건들에 대해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뒷장에 계속>

문제는 조사 기간이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허위신고를 더 많이 적발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에 드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호·관리 비용도 증가한다. 조사 및 보호·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배정된 예산 중 실제 보상에 사용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사기간, 보호·관리 비용, 허위신고 적발건수, 보상금 총액, 보상의 효과 사이에는 다음의 표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일별 조사 및 보호·관리 비용(억 원)	1	2	3	4
일별 허위신고 적발건수	100	90	80	70
보상금 총액 = (예산) - (조사 및 보호·관리 비용) 보상의 효과 = (총 접수건수 중 진짜 피해건수) × (1건당 보상액)				

※ 표에서 일별 통계는 누적분이 아닌 하루 분의 수치임.

※ 4일째 이후에도 일별 조사 및 보호·관리 비용은 매일 1억 원씩 증가하고, 일별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매일 10건씩 감소함.

<뒷장에 계속>

Ⅰ. 위 제시문들은 '의사결정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의 요지를 밝히고(200자 이내), (가)와 (다)의 견해를 비교하고,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점)

Ⅱ. 제시문 (나)의 상황에서, 갑과 을이 제시문 (다)의 관점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관점을 어떻게 '의사결정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지 수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렇게 추론된 '의사결정요소'에 따라 사업 분야를 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2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논술하시오. (15점)

Ⅲ. 제시문 (마)의 경우 보상의 효과를 가장 크게 하려면 정부가 며칠간 조사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Ⅳ. 논제 Ⅲ에 나타난 사례에 비추어 제시문 (라)의 관점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10점)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1400자(±100자), IV는 400자(±50자)가 되게 할 것.